

화순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시동'

5개팀 31명 선정 활동 참여 기회
청년 지역 기반 마련·역량 강화
과업수행비·행사비 등 800만원
발대식 개최...원활한 사업 추진

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청년공동체별 과업 수행비 600만원과 네트워크 행사비 200만원 등 총 800만원씩 지원된다.

지난 8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대해 안내한 후 공동체 간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선정된 5개 공동체는 '마음 나라', '메이커스 길드', '수수한 녀석들', '아트포', '청년 새마을연대'이며, 관광, 예술, 수공예 제작,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화순군이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5개 팀 31명을 선정해 공동 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청년들이 지역 사회활동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



화순군이 전남형 청년공동체 5개팀 31명을 선정했다.

화순군 제공

앞서 화순군은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5개 팀 31명

을 최종 선정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장성군, 이달 말까지 납부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7월1일까지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전화(1544-9944)로 신고·납부한다.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장성군청 또는 북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13~17일까지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 근무해 현장에서 신고·납부 업무를 돕는다. 장성=유봉현 기자

소상공인 이자 보증수수료 지원
영광군, 내달 7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전년도에 소상공인 159개소에 2900만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신규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3년 1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3년 기 신청자의 이자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6월7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 납입 내역을 첨부하여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강변 26개소 도로명주소 부여
장성 황룡강 축제 접근성 향상

장성군이 오는 24~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준비의 일환으로 강변 26개 장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외부 방문객의 경우, 인파가 붐비는 축제기간에는 화장실이나 주차장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로등, 주차장, 화장실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축제 개막 전까지 안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약속 장소를 정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출동에도 도움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담양읍 공공빨래방 호응
어르신 대형 세탁물 빨래 서비스

담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하중삼, 강성령)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세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양읍 공공빨래방'이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5개월간 운영한 공공빨래방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복지인적자원망을 활용해 98가구, 200여 채의 이불을 세탁했다.

세탁이 어려워 비위생적인 수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 수거에서 세탁,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세탁 취약계층의 고민을 해소했다.

강성령 공공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수요를 세심히 살펴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읍 제공

함평군, 총채벌레 관리 당부
고추 바이러스 매개충

함평군은 1월~4월 기상자료 분석 결과 평균기온이 4.1°C로 평년 대비 1.2°C 높아 고추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와 진딧물 발생이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매개충의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지 고추재배 시 정식 후 5월 중순부터 매개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5월과 6월이 총채벌레 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쫓 속에 숨어 있는 총채벌레까지 방제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약제 살포가 필요하다.

매개충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전용 약제를 7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번갈아서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5~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고추 바이러스 매개충 등 병해충 발생에 주의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과 함평소방서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신규 설치했다. (사진)

함평군은 12일 최근 함평소방서와 공동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함평파크골프장 내 3곳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명구조함 설치는 2024년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대책 특수시책으로 함평군 안전관리과와 함평소방서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인명구조함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투척 로프 등이 담겨 있으며, 익사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 대처를 위해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은 구조함 전면에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이번에 인명구조함이 설치된 함평파크골프장은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레저시설로, 골프장 36홀, 저류



함평군과 함평소방서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신규 설치했다. (사진)

함평파크골프장은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레저시설로, 골프장 36홀, 저류

지, 녹지공간, 다목적 수변 레저공원으로 구성되었다.

함평파크골프장은 약천후 시 임시 휴장하나, 저류지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명구조함을 설치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주민들께서도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함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수난사고 등 침수 위험지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여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대숲처럼, 초록처럼' 담양 대나무축제 15일까지 개최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담양 대나무 축제가 지난 11일 개막해 15일까지 죽녹원 일원 야외무대에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개막일 당일 대형 아바타와 퍼포머 행렬로 축제 개장을 알렸으며, 오후 4시 반 개막식과 함께 가수 설운도, 김종국, 소찬휘의 축하공연과 드론 쇼가 펼쳐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대숲처럼, 초록처럼'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나무축제는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야간 콘텐츠를 강화했다.

올해는 최초로 죽녹원을 야간에 개방하며, 곳곳에 유등과 소원달, LED무빙

라이트를 설치해 푸르른 낮과 반짝이는 밤을 만끽할 수 있다.

행사 주무대를 전남도립대 주차장 광장으로 옮겨 한우를 포함한 30여 개의 먹거리 공간과 청년창업, 전시체험, 농특산물 판매, 디저트 전시판매 등의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담양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행사가 준비돼 있다.

담양에서만 즐길 수 있는 대나무땀목, 카누 등 수상체험과 해설사와 함께 죽녹원 인문학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가자 대숲 속으로 휴(休) 체험', 불시에 등장해 박을 터뜨리는 '운수대통 대박 터트리기', 곳곳에서 나타나는 유퀴즈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맞는다. 이외에도 담양의 옛 사진 전시회, 담양군문화재단 기획전시,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및 향토무형문화유산 공연 및 시연, 사군자 테마관 등 담양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도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죽녹원 최초 야간 개장과 밤을 수놓을 아름다운 야간 경관, 흥겨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구성했다"라며 "담양 대나무축제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